



주님 나라 임하소서

2020 성령강림절 준비하기

툼 라이트 (옥스포드, 위클리프 홀)

전도 : 그 뿌리와 진실과 공명과 호스



대한성공회 대전교구
The Diocese of Daejeon | Anglican Church of Korea

주님 나라 임하소서

2020 성령강림을 준비하기

5.21-31

톰 라이트(옥스포드, 위클리프 홀)

전도: 그 뿌리와 진실과 공명과 호소



대한성공회 대전교구

The Diocese of Daejeon
Anglican Church of Korea

전도의 뿌리

세션 1, 2, 3

5월21일(목): 창조주이신 성부 하느님

‘이젠 괜찮아질 거예요!’

이런 말을 들게 될 때 여러분은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사랑하는 누군가가 위중한 수술을 받아서 복도에서 소식을 기다려 본 적이 있을 것 입니다. 여권 또는 근로 허가증이 제 날짜에 발급되지 않아 받을 동동거리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끔찍한 사건에 대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러분의 무죄를 입증해 줄 증인을 찾으려고 수소문한 적이 있을지도요…

그럴 때…

이젠 괜찮아질 거예요.

온 몸이 이완되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실 겁니다.

안도의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도 있지요.

이제 병원, 재판소, 법원 청문회 등을 넘어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눈을 돌려 봅시다. 지구 온난화를 생각해 봅시다. 금융 위기를 떠올려 봅시다.

중동을 생각해 보거나, 미세 플라스틱이 뒤덮여 있는 바다 생태계를 생각해 보세요.

이젠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가요? 누가 그렇다고 하나요? 무슨 근거로요?

우리는 이천 오백 년 전에 기쁨의 노래를 부른 한 위대한 시인의 권위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가득한 것들이 오르렁거려라.
들판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기뻐 뛰어라.
숲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기뻐 노래하여라.
야훼 하느님 앞에서,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땅을 다스리러 오신다.
그는 정의로 온 세상을, 진리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리라.“
이것이 최고로 ‘좋은 소식’인 복음의 기반입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정돈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괜찮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전반적, 우주적 스케일
에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고대 히브리 노래는 이스라엘
의 하느님을 세계의 창조자이며 통치자로 경축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심판이라는 말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곤 합니다.
도덕성의 은행에서 과인출 될까봐 그러는 것이겠지요(너무 꼬
치꼬치 따져서 성가시게 될까봐). ‘심판’은 큰 의미에서 ‘모든
것을 올바른 상태로 돌려놓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
편은 하느님께서 그것을 온전한 정의와 진실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시편과, 시편에 이와 비슷한 구절들은, 온 세상으
로(우주적 범주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해 줍니다.
이젠 모두 괜찮아질 거예요.

이것은 모든 ‘좋은 소식들’, 예수님과 그분이 약속하신 새 생명과 용서라는 메시지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의 궁극적 원천입니다.

시편이 큰 규모에서 우주적인 범위에서 경축한 것을 예수께서는 보다 인간적이고 친밀한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 시편을 어둠속에 들리는 휘파람소리 정도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예수께서는 어둠 속으로 들어 가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복된 소식이 공간과 시간과 물질 속에 닳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방면(총동원) 전도의 호소는 그러므로,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순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창조주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전도는, 복된 소식을 말한다는 것은,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땅으로 이 비범한 약속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듣는 여자, 남자, 아이들의 감정(심장)과 생각(머리)과 삶 속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5월22일(금): 구원자이신 성자 하느님

복된 소식의 심장부에서 우리는 승리의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파트모스 섬으로 유배된 외로운 요한은 하느님의 계획들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못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모든 계획인 실패하는 것을 보며 통곡을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 그는 울부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보아라!’라고 그 목소리는 말합니다.

‘다윗의 계보인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자가 승리를 쟁취하였다! 그분은 두루마리와 거기 있는 일곱 봉인들을 열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사랑과 정의의 회복이라는 하느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유다 지파의 사자’는 바로 예수님이며,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 온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전사이며 왕이었고, 잘 알려진 ‘골리앗을 넘어뜨린 승리’는, 그가 어떤 방식으로 그의 왕국을 세우고 유지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하지만 군사적 승리가 그의 대표적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움으로써 평화의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왕국은 어떤 승리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물음은, 예

수가 자신의 충격적인 소명을 재정립할 때까지 수수께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가 거둔 승리는 죄인들의 편을 드는 승리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식’의 진수입니다. 2천년 동안 계속해서 회의론자를 성도로 변화시켜 온 강력한 진실이 이것입니다.

박해자에서 사도로 극적으로 회심했던 성 바울로는 ‘하느님의 아들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저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복음이란 결국 하느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리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봅시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모든 사람은 악의 힘에 노예 상태입니다. 그것은 요지부동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죄인들이며 (그런 것을 스스로 즐깁니다).

성서는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드러냅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권세들(돈, 성, 권력이든 무엇이든)을 숭배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신들로 여기고, 그것들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렇게 이 힘들을 하느님처럼 섬기

게 되면, 그들은 우리들에게 힘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면(초기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함) 우상들과 거짓 신들의 힘은 무너집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의 진수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여 암흑의 권세를 극복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고대 히브리 과월절 이야기,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당신 백성을 구하신 하느님 이야기의 틀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교 복음사가들이 선포한 ‘복된 소식’이란 결국 새로운 형태의 과월절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인류가 노예상태로 있을 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주종관계의 힘을 부수고,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따라가도록 모으셨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전도의 임무는 이것을 듣는 모든 이에게 이 초대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5월23일(토) : 생명의 숨결이신 성령 하느님

전도는 온 세상에 ‘잔치에 오세요’ 라고 초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그보다 한결 더 좋은 것인데, 왜냐하면 왕의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할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초대는 이사야서에 생생하게 나와 있는데, 하느님께서서는 ‘자, 목마를 사람들은 물로 오세요. 돈 없는 사람도… 오세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인과 우유를 사세요!’. 다른 말로, 하느님께서 파티를 준비하시고 우리는 모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초대를 당신의 이름으로 재발행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그분은 외치십니다. ‘그들은 나에게 와서 마셔라. 누구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생수의 강이 심장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여기서 ‘갈증’은 (이사야와 예수에게 있어서) 두 경우 모두 덥고 먼지 많은 중동에서는 늘 겪는 물리적 갈증이 아니었습니다. ‘갈증’은 우리가 여러 면에서 먼지 가득한,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느끼는 불만족과 상처와 근심을 주는 그런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옛 예언자가 약속한 것에 선명한 초점을 맞춥니다. 참되신 한 하느님께서 살아있는 신선한 물을 제공하시는데 그 물은 우리의 인간성의 저변으로 깊이 들어가 우리를 씻기고 상처를 치유하고 악함과 공포를 씻겨냅니다.

그 물은 지저분한 것들을 하수구로 씻어 내리어, 새롭고, 깨끗하고, 온전한 새로움의 느낌을 갖게 합니다. 전도의 핵심은 ‘파티가 열릴 것이며 사람들은 그 초청 명단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수’란 무엇일까요?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하며 설명합니다.

‘그분께서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영에 대하여 이야기 하셨다.’ 받게 된다니? 그게 뭐란 말야? 그는 다시 설명합니다. ‘그 영을 아직은 우리가 받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요한에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란 ‘성육신하신 하느님의 사랑이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세상의 권세들을 극복하는 때’이다. 이렇게 복음서는 ‘생명의 물’을 예수의 구원하는, 승리의 죽음과 밀접하게 연관시킵니다. 물을 원하는 사람은 예수께 나와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출하였기에 그분은 당연히 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을 때, 나의 인생에서 죄에 얼룩진 움푹한 곳을 통과하여 흐르는 생명의 물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따르는 이들에게 숨을 불어 넣습니다. 이 행동은 하느님께서 첫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창세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생수를 받은 여러분은 사해와 같은 죽은 호수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흘러 들어가지만 아무 것도 흘러 나오지 않는 호수 말입니다. 여러분은 높은 산들에 둘러싸인 작은 호수와도 같아 졸졸 흐르는 물들이 모아 또 다른 이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 흘러내립니다. 초청을 받은 여러분은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사실들

세션 4, 5, 6, 7

5월24일(주일):

1 고린토 15장에 나오는 바울로의 복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복된 소식’은 예수라는 사실에 맞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실재한 인물이라는 그의 생애와 활동의 주요 특징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요즘 많은 사람들은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가 초기 로마 제국을 말하면서 그 시대가 나자렛 예수가 살았던 때라는 것을 흘려버리곤 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가 전혀 실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존재하지 않았고 플라톤도 지어낸 이야기이고 예수가 통치하에 살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황제 티베리우스도 존재하지 않았거나 로마 역사가들이 지어낸 것이란 말입니까? 역사를 연구하는 이들이라면 이런 주장을 단 1초도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예수가 무엇을 하였는가’ 그리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서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는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바울로는 기록합니다. 그것은 그와 당시 그리스도교 교사들이 반석으로 여겼던 초기교회 ‘신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계속 합니다. ‘메시아는 묻히시고,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일어서

시어,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예수께서 생생하게 나타난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의 리스트로 이어 갑니다. 그의 요점 그리고 초기 ‘신경’의 요점은 ‘복음’이 인간의 공상이나 소원성취에 관한 것이 아님을 확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일종의 ‘영적 존재’라거나, 그런 예수와 접촉하여 우리 삶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발상과 결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것, 예수에게 일어난 일에 관한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변한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요점은 ‘실제로 일어난 그 무언가’가 ‘복된 소식’을 발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란, 세상을 올바르게 변화시키려 활동하시는 창조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 안에, 아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키려는 일을 역동적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바울로는 이 모든 증인들을 언급하며 확증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실재하였다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건은 그 전에 있었던 일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실 1세기에 메시아가 될 사람 또는 예언자들 중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허다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었다’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예수 곁에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들 중 한 사람이 사흘 만에 산 채로 발견된다면, ‘사람들은 세상에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네’라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는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거나, 그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였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였고, 여전히 메시아이며 그의 죽음은 전혀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오래 기다려 왔던 메시아의 죽음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로는 이 장에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글의 목적상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전도’는 예수에 대한 진짜 이야기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흐릿하게 언급하면서 그저 ‘요즘에도 뭔가 의미가 있는’ 또는 우리의 구출(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사고방식이라고 얼버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복음은 진정으로 시공간에서 일어난 역사에 기반합니다.

우리가 구출 받고, 용서 받고, 변화 받기를 원하는 바로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현실 세계에서 실지로 일어난 일에 관한 것입니다.

5월25일(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바울로의 복음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바울로는 그리스도교 ‘복음’이 실제로 무엇인가에 대한 간결한 요약에 인용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사람들(사도들) 중 하나로서 바울로는 자신이 하느님의 복된 소식을 위하여 선택되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 바울로의 전 생애를 형성하는 것은 소명, 즉 복음을 말하는 사람, 더 나아가 복음을 체현하는 사람으로서의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는 복음은 성서에서 하느님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셨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사건들이 실제로 성취된 후에야 이에 대한 명료한 시야를 갖게 되었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모든 예언자들은 오래 전부터 예언과 환상 가운데 (예수 사건에 대하여) 힐끗 보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하는(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만)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종교적 내면을 잘 정돈하는(그런 면도 있지만) 방법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칭송받아 온 구절처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까’를 간단히 제시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 물론 복음에는 ‘의롭게 여김’이 수반되지만 방법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은 예수에 관한 사실입니다.

바울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복음은 성자에 관한 것입니다. 이분은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시며, 영적 거룩함에 있어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느님의 아들로써 강력하게 표명된 분이십니다. 예수는 왕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밀도 높은 요약은 우리가 1고린토 15장에서 보았듯이, 참으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속에서 명료하게 바탕을 이루는 형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복음’은 예수에 관한 메시지이지, 여러분과 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의 핵심을 이루는 사실들은 뻗어 나와 우리들 모두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메시지는 ‘예수께서 지금 이 순간, 이미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로 왕위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로가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쓸 당시에는 이미 스스로 세계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생각한 막강한 사람(황제)이, 엄청난 군사력을 바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로는 진정한 복음사가(전도자)답게 담대하게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가 이 세상의 실질적인 주인(주관자)이라고 말합

니다.

그는 이 주장을 하느님의 영,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성령의 권능으로 뒷받침합니다.

이 예리한 짧은 진술은 예수께서 마태오 28:18에서 당신 자신에 대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에는 하느님께서 ‘권능에 싸여’ 오시는 것을 생전에 볼 사람도 있을 것이라(마르9:1)는 오랜 예언과도 일치합니다.

‘권력’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의 문제점은 정부가 군대를 보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국한하여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문제해결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도 자주 말씀하셨고, 바울과 여러 사람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예수는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복된 소식’, 즉 복음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섬김에 사람을 끌어들이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고 약속을 성취하는 사업에 동참하게 합니다.

5월26일(화) 예수의 복음: 하느님 나라

나자렛 예수의 역사적 실재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메시지의 핵심에 대해서도 명백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는 ‘하느님 나라’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하느님나라가 예수의 ‘복음’, 그 ‘복된 소식’의 중심이라는 데 대하여, 번번이 두 가지 오해를 합니다.

오늘날 여러 곳에서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에서 ‘하느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하늘에 가는’ 것이라고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복된 소식’은 다음과 같은 것이겠지요.

예수는 이렇게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천국에 가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와 전혀 다릅니다.

물론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백성을 죽음 이후에 보살피시고, 마침내 새로운 창조 안에서 새로운 몸의 생활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것을 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예언자들이 상상했던 바, 온 세상이 멈출 때가 온다는 경고도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의 그림언어 picture-language에 대한 근대적 오해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메시지는 그 분이 기도를 통해 실제로 가르쳤듯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느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묵시록까지의 요점은 바울로가 전한 복음과 예수의 복음의 명확한 요점은 사람들이 하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오신다는 것, 하느님께서 늘 의도하신대로, 새로운 창조 안에서 인간들과 함께 사신다는 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말하자면 하느님께서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왕이 되시는 데에 관하여 예수는 일반적인 형태의 혁명 운동 즉 지인들을 비밀리에 모든 다음 군사적 정권 획득을 시작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예수의 가르침 중 많은 것은, ‘복된 소식’에 관하여 그의 전개는 ‘비유’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것은 하느님 나라에 대해 ‘예’라고 하고, 당대에서 도래하길 기대하던 하느님 나라에 대하여 명백하게 ‘아니오’라고 하는 숨겨진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무도 몰래 자라나는 씨앗, 또는 탕자를 반기는 아버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땅치 않은 손님들로 가득 찬 결혼 잔치, 왕권을 받으려 멀리 갔다 돌아오는 고상한 사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바꾸려 할 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위험할 때, 이러한 그림언어picture-language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왕이시라고 함으로써(첫 단계

혁명),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듣지 못한 방식으로 제시하십시오(둘째 단계 혁명), 예수는 이중 혁명가 double revolutionary입니다. 그리고 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방식' unheard-of manner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복음'은, 우리가 방금 연구한, 바울로가 전한 복음 메시지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이 둘 모두, 예수와 그의 운명(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고, 무엇을 이루셨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둘 모두 세상을 만드신 하느님께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이 둘 모두 왕이 이루시는 구원에 의해 삶을 변화시키도록 사람을 가리지 않고 초청하시는 또 한편, 당신 자신과 마찬가지로, 구출 받은 구출자로서 원대한 프로젝트의 조력자가 되도록 초청하시는 부르심입니다.

복음이 그 내면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5월27일(수): 예수의 복음: 루가 4장

성 루가의 기록들 전반에서 예수의 복음은 실제 생활 조건, 특히 가난한 이들의 생활 조근에 관한 복된 소식입니다. 루가 4장에서 예수는 고향 나자렛에 가서 이사야 61장을 읽습니다. 주의 영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포로의 석방과 맹인의 눈뜸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피해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것은 물론 어떻게 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예수께서 설명하고 계시다고 상상하는 이들에게 잘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이지만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포로 석방에 몰두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옥에 갇혔던) 예수의 사촌 세례자 요한이 이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수께서 시각장애인인의 시력을 회복시키셨고, 몸과 정신과 정서의 상처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보다 더 큰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희년'의 오랜 약속과 명령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의 요점은,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에 실제로 실행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49년 마다 큰 안식이 다가 오는데, 그 때에는 누구도 조상에

게 물려받은 채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가난의 숙명을 진 이들의 채무는 탕감되고, 노예들은 석방되고, 자연스럽게 큰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50년마다 재현되는 출애굽인 셈입니다.

하느님께서 노예들을 해방시키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남을 자유롭게 하는 민족으로 살게 하려는 뜻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는 출애굽 축제인 과월절을 당신의 최종적 활동으로 선택한 것과 같은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적 ‘과월절’의 상징을 선택하여,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의 비전을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주의 기도에 중첩된 의미로 체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 뿐 아니라 우리의 빛도 사면해 주소서.

예수의 예리한 말들 중에는 그분의 프로그램에 담긴 이 측면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많은 이들을 위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 자신의 복음 메시지, 그리고 바울로와 여러 사람들의 목음 메시지에 나타난 호소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이들이 돌봄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초에서부터 공생에 동안 내내 예수 운동의 디엔에이DNA로 세워져 있습니다.

초기 저술에서 바울로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자신에게 ‘가난한 이들을 항상 기억하라’는 열망을 표현했는지 말합니다. 바울로 이 일에 자신이 얼마나 열망을 가지고 실천했는지 기록합니다.

현대의 서방 세계는 ‘복음’의 이 부분을 완전히 망각하였습니다. 실상, ‘하늘에 들어가려는’ 우리의 갈망은 때로는 핑계거리로 보입니다. 하지만 루가는 매우 단호합니다. 첫 그리스도인들은 나눔의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리스 단어 아가페, 즉 ‘사랑’은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돌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실천하면서 심장에 느끼는 감정을 의미했습니다. 현대 경제학자들이 꿈꾸는 계획들 중 일부는 예수께 충성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리스도교 ‘복음’의 결과를 얻어내려는 시도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복음의 모체로서,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이 의도했던 ‘복된 소식’을 살아갈 공동체들이 생겨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음의 공명

세션 8, 9, 10

5월28일(목): 아름다움

저희들 여섯 명은 실내악 연주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인 홀을 사용할 수 없어서 우리는 누군가의 거실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카펫과 커튼과 가구가 소리를 흡수하여, 음악이 어떻게 연주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작을 보면서 하고 있었는데, 결국 홀을 쓸 수 있게 되어 음악을 실제 그대로 들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진지하게 전도를 해 본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황은 복음에서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해 말할 때, 모든 창조를 회복하겠다는 성부 하느님의 약속에 대하여, 우리 죄 때문에 악을 물리치러 죽으신 성자 하느님에 대하여, 생명의 물처럼 우리 위에 부어져 내리는 성령 하느님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가 어디 있고 누구인지에 대한 음향학(소리가 방 안에서 어떻게 울리는가에 대한 특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메시지만 말하려 한다면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놀랍도록 강력한 예수 이야기의 메시지 중 일부만 얻겠지만, 진짜 중요한 요점을 놓치게 됩니다. 그들은 반향을 온전히 감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 음악의 화성들이 우리 일상의 폭신한 가구들 속에서 소실되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조 전체가 회복되고, 부서짐이 아름다움으로, 훼손이 경축으로 전환되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하면서, 미술과 음악과 장식과 좋은 음식과 즐거운 축제로 창조의 아름다움을 경축하는 데에 응당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 번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몇몇 그리스도교 운동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데 있어 음악의 스타일과 질에 대하여, 교회 예배 공간을 꾸미는 데 있어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것을 넘어서 건성인 것은 참으로 기괴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곳이든 어떤 장소든 하느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한 요점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진지한 영적 문제를 전문기술로 치장하는 잘못을 범할 위험이 상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동일한, 아니 더 심한 위험이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복음 메시지를 울리게 할 ‘공명실’echo-chambers(소리의 공명을 일으킬 공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고 무심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와 성령과 창조주 하느님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바다와 숲이 즐거워 노래하게 하기 위해, 복음 계획에 착수하셨다 설명한다 한들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물론 아름다움은 수수께끼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보면 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이 생명에 관한 무언가 가장 깊은 진실을 가
리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일몰은 사라져가고, 아기의 달콤한 미소도 점점 심각
해지거나 때로는 음험해지며 음악도 언젠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모두 우리의 어둠에 새 빛을 주러 오시는 하느
님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예술은 진리를 온전히 체현할 수는 없더라도 그것을
가리킬 수는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복음을 설교하는 건물이 음악적으로도 훌륭한 예배를 공
명할 뿐 아니라 복음과 신학적으로 잘 공명할 수 있도록 디자
인하려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요.

5월29일(금): 자비로운 정의

제가 아름다움에 대해 말한 것은 ‘정의’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체가 세상의 잘못된 것을 관촬하게 하시는 하느님에 관한 것이라면,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단 두 세 곳이라도 세상의 탈골된 지역에서 일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놀랄 일은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 세상에는 손님을 끝만한 많은 ‘정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사실 정의라는 단어는 너무나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 정의의 의미가 ‘나를 열 받게 하는 것’ 또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정의’의 진짜 이슈들을 간과하게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와 그 개념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정의는 잘못 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현하려면 하느님의 아름다운 세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또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교회가 세상의 잘못 되어있는 것을 바로잡는 데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면 장군들과 여타 압제자들이 무자비한 행동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난민

이 되어 피난하는 데에 관심이 없고, 세계 여러 곳에서 여성들을 대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 제대로 분노를 느끼지 않고, 부유한 은행가들이 수십 년 전에 무책임한 독재자에게 복리로 계산하여 돈을 끌어 모으는 영터리 대출이 이제는 극빈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을 때 이를 대변하기를 게을리 한다면, 교회가 이런 문제들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여기에 덧붙여, 우리가 하느님께서 세상을 바로잡으실 계획이 있으시고 그 프로젝트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착수된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는다고 이상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에 대하여 설교하려 할 때, 하느님께서 복음을 믿는 모든 이들을 ‘바른 편에’ 서셨다고 선언하심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날의 표지와 미리 맞봄으로 삼으신 이 큰 프로젝트에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러한 변명으로써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은 단순히 그리고 순순히 ‘하늘가는 것’에 관한 계획의 일부로 채택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로에게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자비로운 정의 또는 정의로운 자비는 복음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게 할 적합한 ‘공명실’의 한 측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확실히 알게 된, 전도가 ‘전 교회가 수행하는 작전 a

whole-church operation의 날카로운 칼날, 즉 하느님 백성 전체의 생활 방식임을 부각시킵니다. 큰 회합에서 연사로서 이야기하는, 또는 불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을 찾아가는 길을 돕는 그런 재능과 소명을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향실을 만들고 유지시키는 일에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이러한 소명을 받은 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예수의 복음이 더 넓은 세상과 ‘공명’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공동체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월30일(토): 근거 있는 주장

현대 과학으로부터 배운 것 중 하나가 또 다른 수준의 ‘이해하기’ making sense(감각하기)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학 전문가가 아니기에 이 정도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세기에 물리학의 기본 법칙들이 정리되었는데, 그것은 아이작 뉴턴이 ‘이해한’ made sense 것이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과학적 질문들을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 알버트 아인슈타인 Albert Einstein이 나타나 갑자기 다른 방식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뉴턴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는 불완전 incomplete했을 뿐입니다.

우주는 그런 기계적 사고방식의 시대의 뉴턴 또는 그 누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한 세계입니다.

그리스도교 복음이 ‘말이 되는가’ makes sense(이해되는가)에 대해 물을 때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합니다. ‘이해하기’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의 많은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회의론의 도전을 직면했습니다. ‘초자연’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복음이 ‘이해될 수’ 있는가(말이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저마다의 방식으로 답하려 하였습니다. 유일한 대안은 복음은 전혀 ‘말이 안되기’ not make sense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나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비판을 용인하는 것 뿐인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성주의 회의론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을 이성주의 용어로 환원하는 위험을 직시하고, 낭만주의 유형으로 물러섰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마음에는 근거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성이 무시해 왔던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옆 집에 사는 이성주의자들이 당신에게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죽음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격동하는 것은 정말 가능한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일어서신 예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선포할 때, 사람들을 사랑과 충성으로 초대할 때, 그 메시지는 그들을 사로잡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의미 있는’ makes sense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 과학 또는 고대 역사 등등의 용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그 합당한 충격을 발생시키려면,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있어서, 아름다움을 증진시키고, 자비로운 정의를 위해 일하는, 그 일들과 병행하는 임무(연구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때때로 불신자들이 예수 추종자들이 하는 일을 보고 회심을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임무들이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요점은, 복음의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함께 공명실들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실존했다는 것을 부정하고, 신약이 입증하는 것들에 대하여 전혀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역사적 이슈들' historical issues을 다루는 것은 중요합니다. 1세기 유대 세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상황 속에 예수의 행동과 가르침은 어떻게 맞아 들어갔는지, 그들의 주류적인 사고들을 어떻게 고의로 전복하려 했는지에 대하여 사람들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느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거나, 누군가가 지은 죄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군가가 알맞은 감수성을 가지고 연구하여야 합니다. 이 거대한 사상들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탐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역사가나 신학자의 임무들은 아름다움과 자비로운 정의의 임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알맞은 공명심의 일부로서, 예수의 온전한 복음을 명확히 전하고, 지적으로 설명하고, 또 믿게 되는 환경을 이룹니다.

복음의 초대

세션 11

5월31일(성령강림주일):

하느님의 구원 목적에 사로잡혀

전도라는 놀라운 임무에 관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성찰해 본 것을 종합하면 무엇이 될까요?

‘전도가 하느님의 일’이라는 말을 가장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사로잡혀 있지만 종국에 그것은 하느님의 일입니다. 바울로는 ‘하느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된 소식이란 하느님께서 스스로 성취하신 것이며,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 당신께서 일어나게 하신 일입니다. 바울로는 이 복음의 ‘종’이었을 뿐입니다. 바울로가 이 정도라면, 그 밖의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바울로의 어깨를 무겁게 하던 책임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들이 지고 있으며, 공적 모임에서나 사적 대화들에서나 복음전도자로서 재능과 소명을 받은 이들이 지고 있는 책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설교들 중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많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에는 여러 소명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저의 반세기를 돌아보면 저는 공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일선에 서 있기 보다는 교사가 되도록 부름 받고 그 임무에 적합하게 되어왔습니다. 때로는 저도

전도 임무를 직접 맡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온 교회가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사업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자를 직접 대면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이 신앙으로 나아오도록 돕는 일이지, 아름다움, 자비로운 정의, 또는 변론과 같은 보조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하느님 백성이면 누구나 참여하는 기도 생활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든지 방식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알리고 사람들이 그분을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일을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승천일에서 오순절로의 우리 여정을 마감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음이 엄밀하게 ‘새로운 창조’에 연관되어 있기에 때로는 극단적인, 항상 결정적인 변모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느님께서 개인에게 오셔서 새로운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만드시는 데에 예리한 초점을 맞추신다고 복음은 선언합니다.

복음의 임무는 인류가 길을 벗어나 우상을 숭배한 이래 창조주 하느님께서 착수하신 재인간화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셋으로 요약하며 맺으려 합니다.

첫째,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일어서신 예수께서 주님이시라는 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자신의 죽음 안에서 악의 권세를 예수께서 물리치셨고, 부활 안에서 하느님께서 새로운 창조에 착수하셨다는 소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주님’이라는 단어의 뜻과 관련된 것으로, 예수께서 사회적, 문화적, 인종적, 도덕적 배경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을 부르시어, 당신의 전 세계적인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사랑과 용서로 부르신다는 사실이 복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환영은 변혁적입니다. 그들을 신앙으로 나아오게 이끄시는 성령께서는 그 일을 계속하시어 완수하실 것입니다.

셋째, 그렇게 사람들이 신앙으로 나아오면 그들은 하느님과 동행하며 ‘바르게’ put right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세상을 ‘바르게’ putting-right하는 하느님의 프로젝트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세상을 구출하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출하고 회복시키심으로써 우리가 당신의 새 창조의 살아있는 작은 모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